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혜정 (동서엔지니어링 선임연구원)*

김미리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으로 규명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은 모두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남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녀차이에 따른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자기효능감과 감성지능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회적기업의 창업 교육에 있어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I. 서론

1.1 연구배경

국내 사회적기업의 도입, 확산 등과 같은 산업계 관심은 사회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창업자에게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줌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창업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사회적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의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방하남, 2010; 이연호 외, 2011; 김덕호·정문기, 20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2018년 정부는 제 3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18a; 2018b; 2019b). 고용노동부(2019a)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수가 2007년 55개 대비 2019년 2,021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경제 지향성을 갖춘 기업가들의 관

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국가차원의 양적변화를 추구하는 창업 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 변화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기업의 관심은 기업 중심의 운영 및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또한, 국내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들은 성공한 사회적기업, 기존의 일반기업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조직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성공과 실패(라준영, 2010; 장성희, 2012; 2014), 사회적기업의 조직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 조직시민행동, 지속가능성(정대용·김민석, 2010; 박성훈·김동준, 2011; 장영란 외, 2012; 김희철, 2017), 파트너십과 성과(김영욱 외, 2012), 사회적기업 성과와 사업의 효과성(곽선화, 2013),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위한 성공요인(이승희 외, 2013),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주상호·이광순, 2016),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과 지속가능성(이진민·이상식, 2017), 재정지원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전은영·변병설, 2017), 사회적기업의 운영 모델(이정원·김영진, 2017) 등의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 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정신, 환경적 요인, 제도 및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가 대다수이거나 사회적기

* 제1저자, 동서엔지니어링 선임연구원 archwood@naver.com

**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mirikim@sogang.ac.kr

· 투고일: 2020-08-24

· 1차수정일: 2020-10-13

· 2차수정일: 2020-10-23

· 게재확정일: 2020-10-28

업가정신의 구성요인, 개념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적 차원, 단일 차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조규호, 2013; 위주환·김재호, 2014; 권순봉 외, 2016; 김덕호·정문기, 2017).

국내 사회적기업의 관심은 사회적기업 창업가 인재양성을 통한 질적 향상이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창업, 창업의지, 창업의도 등 창업에 관한 연구는 시작하는 단계이다(강민정 외, 2015; 김덕호·정문기, 2017; 권기환·김진홍, 2017; 홍은표·김진희, 2018). 이를 뒷받침해주듯이,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1인 기업, 소셜 벤처, 조합 등)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 창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의 창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드물며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창업의 환경적 특성으로 주로 다루어져 왔기에 사회적기업 창업에 주체인 창업자의 내적 특성 및 역량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이수인 외, 2016, 김창봉·백남욱, 201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적 특성 요인들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특성 요인을 도출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창업의도로 구분된다(Dacin & Tracey, 2011; Defourny & Kim, 2011). 일반적으로 창업의도는 확실한 목표 혹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라는 마음의 상태이며,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이다(Bird, 1998; Souitaris et al., 2007). Shapero & Sokol(1982)은 지각된 욕구, 지각된 실현 가능성, 기회에 대한 행동 성향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창업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벤트)으로 바라보고 개인적인 요인 혹은 습관, 버릇 등을 요인으로 모델을 제안하였고 Krueger(1993)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러한 창업이벤트모델에서 창업행위에 대

해 창업자가 가지는 매력 정도인 인식된 매력성, 특정한 행위를 실행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혹은 자신이 속한 환경 내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인 인식된 실행가능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요인들이 최종적으로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hapero & Sokol, 1982). 특히, 기업가정신의 이벤트(사건)는 사회적·환경적 요인들의 조합 결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을 발생시키는 상황적, 사회적, 개인적인 요인이 모두 모여 이벤트를 성공시킬 수도 있다(Fayolle, 2006; Krueger, 1993).

해외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Nga & Shamuganathan(2010)은 말레이시아 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특성)에 대한 연구를 5대 성격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감정, 역할모델, 나이, 성별, 교육 그리고 경험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독일 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나 공감성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의 관련성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Ernst, 2011). 이후, İrengün, & Ankoğuş(2015)은 이스탄불 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개방성, 합리성, 외향적인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Hockerts(2015)는 Mair & Noboa(2003)의 모델을 기반으로 도덕적 의무라는 요인을 도덕적 책무로 변경하고 사회적기업가로서 자기효능감, 공감성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원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검증하였다. 또한, Ip et al.(2017)은 Hockerts(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성, 도덕적 책무, 지각된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이 홍콩지역의 사회적기업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Tiwari et al.(2017)은 감성지능, 창의성 그리고 도덕적 책무가 인도지역의 사회적기업가적 태도 및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감성지능과 창의성은 사회적기업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간의 연관성은 매우 높았으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창업의도를 바라보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국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앞선 국외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적 자본, 환경적 체도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조규호(2013)는 기업가적 특성과 사회적 가치 기여의식 그리고 사업추진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청주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적 특성인 기업가 지향성, 사업추진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위주환·김재호(2014)는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환경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 지원이 높고 사회적기업가정신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높이 인식하는 예비 창업자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가

높았음을 밝혔다.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가운데 선량한 마음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자선 경험만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며 공감성과 이타주의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권기환·김진홍, 2017). 홍은표·김진희(2018)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창업가정신,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 정부지원이 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창업자의 행동은 사회적기업의 영리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국가차원의 사회적 배경이 달라서 등장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각각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 창업효능감 등 사회적기업가의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국내 연구를 국외연구와 비교해 보면, 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의 구성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2 사회적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개념화의 확립이 되어있지는 않고 있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가에게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초점을 둔다는 점이 기존의 기업가정신과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Austin et al. (2006)은 기존의 기업가정신과 구분되는 특징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개인적인 이익 추구화가 목적이지만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성과는 재무적 성과(자산 및 자본 수익률, 매출 증가율)를 중점으로 측정되지만,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성과는 표준화되지 않고 조직마다 다르게 측정된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예상되는 재무적 성과가 보일 때 자원 동원이 어렵지 않으나,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재무적 성과가 확실치 않음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후원을 받는 자원 동원이 쉽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 혹은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사업 그리고 정부 부서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환경적 요인(환경의 동태성, 환경 기회의 탐색과 확인)과 구성요인(혁신 추구성, 진취성, 위험 관리성)으로 구분하고 성과(사회적 가치창출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다(이용탁, 2011). 이후,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프로세스 모형을 사업 기회의 존재, 발견, 실현, 확산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영리기업과 달리 마지막 단계가 소멸이 아니라 확산이라는 특징을 밝힌 연구가 진행되었다(고유상 외, 2014).

조희진·장용석(2016)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나 사회적기업가가 가치 융합적 태도를 보이면 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부재한다면 사회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주요 변인으로 보고 영리기업과 비교 연구한 결과 사회적기업 구성원들이 사회적기업가정신, 심리적 주인의식이 일반기업보다 높음을 검증하였다(양현선·한태영, 2018). 이러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기업 및 조직 단위의 성과 측면에서 행동 및 행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관한 정의

연구자	정의
Granovetter(1985)	경제적인 환경을 사회 구조적 관계로 확립시켜주는 새로운 경제적인 활동행위
Peredo & Mclean(2006) Shaw & Carter(2007)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조직 혹은 기업을 창조하는 사람
Leadbeater(1997)	활기찬 리더십, 창조적인 한정된 자원의 활용, 장기적인 고객관계 유지 등으로 구성
Dees(1998)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과정을 찾으며 종종 일반적인 기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많이 하지 않는 것
Ashoka(2012)	단기간 내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촉진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하는 것
Bornstein(2007)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자 사회적 환경을 새로이 만들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
Austin et al(2006)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거나 혹은 비영리조직, 조직, 사업 그리고 정부 부서 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연구들은 일부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수행되거나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을 성장시키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촉진 요소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요건임을 다수의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환경적 요인 및 조직 내부적인 요인으로 주로 고려했으나 개인 특성적 요인과 개인 내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였음을 발견하였다.

Mair & Noboa(2006)는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요인들을 탐색적 모형을 통해 제안하였다. 그들은 계획된 행동이론과 창업이벤트모형을 기반으로 공감성, 도덕적 판단,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바람직성과 지각된 실행가능성을 거쳐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전통적 창업모델은 상황적, 사회적,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공감성과 도덕적 판단을 확실하게 정의하지 못하였으며 창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Mair & Noboa(2006)의 모델은 개인 수준의 공감성과 도덕적 판단이라는 감정적 요인을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모델에 영향을 주는 탐색적 요인으로 살펴봄으로써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설명하고자 시도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밖에도 습관, 버릇 등의 요인도 포함할 수 있다(Shapiro & Sokol, 1982).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령, 성별, 가족관계 등과 같은 개인의 배경 및 성취욕구, 자아 효능성 등의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다. 개인차는 타인과 구분되는 개인의 우수한 자질과 우성을 의미하며 일관성은 그 사람이 지닌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정한 반응 양식을 의미하며 교육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최종열·정해주, 2008; 강재학·양동우, 2016; 장유진·이병희, 2019).

배귀희(2011)는 사회적기업가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전통적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핵심 구성요소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이외에 사회적 목적을 중요한 요소로 규명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측정 모형을 설계하고 실증검증을 하였다. 더 나아가 최윤미 외(2015)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심리적 및 기능적 특성, 개인적 및 집단적 주제, 사회적 및 기업가정신의 용어 구분으로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심리적 특성은 사회적기업가가 지닌 개인적 특질이나 자질을 의미하며 기능적 특성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가의 행동이나 활동이다. 즉,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공감, 혁신, 실용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요소는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일에 정진하는 가운데 성장 및 발전하고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사회적기업가는 민간 기업과 다르게 공감적 가치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장유진·이병희(2019)는 외향성, 혁신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을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라고 하였다.

이상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및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창업이벤트모델을 바탕으로 한 Mair & Noboa(2006)의 연구를 확장하여 개인적 특성과 연관된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및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3 창업자의 개인적 특징

2.3.1. 도덕적 책무

도덕적 책무는 개인이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도덕적 의지(의도)를 형성하기 전에 나타난다(Haines et al, 2008). 또한, Mair & Noboa(2006)도 개인이 보편적 선량함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도록 동기부여 하는 인식의

과정(cognitive process)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자신이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책무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 Markman et al.(2002)은 개인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적 기술을 최대한 극대화하여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을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성공단계에 도달하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2.3.3.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자 창업자의 감성지능은 행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Wong & Law, 2002). Mayer et al.(2002)에 따르면, 감성지능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개인이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억, 판단, 감정 등을 근거로 개인마다 다르게 인지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 관점은 인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타인을 인지하거나 동화에 있어서 도움을 주며 내가 타인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의 정도나 타인이 나한테 느끼는 감정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Zhou & George, 2003).

III. 연구 가설 및 모형

3.1 연구 가설의 설정

3.1.1.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개인의 심리적 특징인 도덕적 책무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 사회적기업가의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Haines et al., 2008). Plaskoff(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가는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의 열정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가의 도덕지수는 일반기업가들에 비해 높으며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책무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추론하고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도덕적 책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설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계획, 자본금 확보 등 임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창업에 의한 확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Sequeira et al., 2007).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은 경영자가 창업 이후의 지속경영을 위한 핵심요인이다(Locke & Latham, 1990). 이를 바탕으로 Kibler & Kautonen(2016)은 사회적기업가로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토의를 바탕으로 추론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자기효능감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정은정·조경희(2015)의 연구에서 리더의 감성지능과 감성 리더십 결합의 결과로 높은 상호작용은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며,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동기부여의 요소로 감성지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은 창조성과 관계가 높는데 특히, 창업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태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Zampetakis et al., 2009).

Tiwari et al.(2017)의 최근 연구 결과도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의 태도 및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직·박재춘(2015)의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선행요인으로 개인 창의성이 중요하며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감성지능이 지니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결과적으로, 감성지능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3. 감성지능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이나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에서 행하는 행위의 원동력이다(Tan et al., 2005; Roberts & Woods, 2005). 또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도덕적인 개인이 위험을 무릅 쓰고 변화나 변혁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해주고 강화시켜 준다(Tan et al., 2005). 김성환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동시에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사회적 가치 추구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형주·전인오, 2017). 즉,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는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Mair & Noboa, 2006).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4.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5. 성별의 조절효과

창업의도는 창업과정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이자 핵심 개념으로 회사 설립에 대한 철학, 태도, 행동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개인 미래에 대한 행동 즉 사업, 조직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계획적인 실행을 위한 전념을 뜻한다. 창업의도는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회를 찾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의도적인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Krueger & Brazeal, 1994). 따라서,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창업의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적 모형에는 창업행동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있다(Shapiro & Sokol, 1982; Ajzen, 1991). 제시된 창업의도 모형은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토대가 된다.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명백한 결과로 정의된다(Mair & Marit, 2006). 따라서, 개인적 특질(traits)이나 자질(qualities)과 같은 속성으로 접근하는 심리적 특성의 관점인 기업가의 심리적 상태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해석될 수 있다(최윤미 외, 2015). Krueger, et al.(2000)는 기업가정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요인에 대한 설명력(53%)이 환경적 요인보다 설명력(35%)이 더 높게 나타나 개인 특성, 경험, 교육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더 나아가 Arenius & Minniti(2005)는 기업가정신의 예측요인과 창업 여부간의 관계를 로짓 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업가의 성별, 창업 이전 취업상태,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 경제학적 요인들이 기업가정신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별은 기업가정신을 설명하는데 여러 요인 중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산업연구원, 2008; 추승엽·공혜원, 2019). 추승엽·공혜원(2019)은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변수 중 성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기업가정신 수준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남성은 개인적 이익 추구가 기업가정신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보였지만 여성은 개인적·사회적 이익 추구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 차이의 효과는 다양한 개인적 및 사회적 요인들과 중첩되어 나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정 국가에서 형성된 문화로 인해 성별에 의한 사회적 역할 및 관념이 만

들어져 성별 차이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Zahra & Wright, 2011; De Vita et al., 2014; Walter & Dohse, 2012; 추승엽·공혜원, 2019).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으로 사회적 가치의 지향성과 관련 있는 도덕적 책무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내면화된 도덕적 규칙으로 설명된다. 사회역할이론(Social Role Theor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es et al., 2014). 따라서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공혜원·추승엽(2020)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 의도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양준환·점희, 2015). 이는 인간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남녀간의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Shirokova et al., 2016). 이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은 지적 능력의 문제 해결 접근과는 다른 방식인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 자기 감성 이해, 타인 감성 이해, 감성 조절, 감성 통제 등의 감성지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이 그 역할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성별에 따라 감성적 경험과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Bimbaum et al., 1980). 남성과 여성의 감성 경험과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Tangney, 1999; LaFrance & Banaji,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조절할 것으로 보고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도덕적 책무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정(+)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 자기효능감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정(+)의 관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7: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정(+)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1.6.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 의 관계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윤남수(2012)는 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임진혁·이장희(2017)는 변혁적 리더십의 배려요인 및 자기효능감이 조직 차원의 정성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관계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배려요인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자기효능감과 정성적 성과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검증하였다. 즉, 배려를 바탕으로 한 변혁적 리더십은 기업가정신을 통해 보완되고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창업가정신은 CEO의 경력지향성(관리지향 및 사업지향)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 역할을 보여주었다(박재환·김우중, 2015). 정선희·조성미(2018)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태생, 목적, 소유권을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요인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부분매개효과를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매개가 없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재춘(2019)은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앞서 논의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도덕적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 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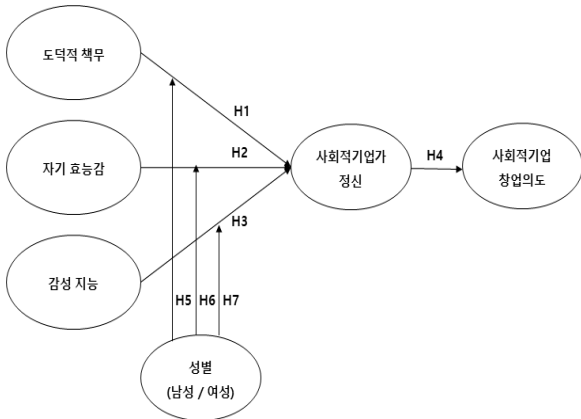
가설 8: 사회적기업가정신은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9: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0: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 관련 있는 개인적 특성(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다음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IV. 실증 분석

4.1 연구 방법

4.1.1. 표본 선정과 자료수집

국내에서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직접 설문, 이메일, 그리고 웹 설문방식의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회수된 36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349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4.1.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도덕적 책무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만들려고 노력하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Ernst(2011), Forster & Grichnik(2013) 그리고 Hockerts(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스스로가 믿는 믿음 혹은 신념을 의미한다(Hockerts, 2017). Bandura(2006)와 Hockerts(2015)가 제시한 측정항목을 토대로 4개의 설문항목을 재구성하였다. 감성지능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Petrides & Furnham(2001)과 Zampetakis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3개의 측정항목을 활용하였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개인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행위를 하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의 측정 항목은 Donh(1949)과 Sutha & Sankar(2016)의 연구를 기초로 측정하였다.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는 개인이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로 정의하고 Hockerts(2015)와 Ip et al.(2017)의 연구를 토대로 4개의 측정항목을 만들었으며 모두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4.2. 분석 결과

4.2.1.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는 169명(48.4%), 여자가 180명(51.6%)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40-49세까지가 122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39세는 102명(29.2%), 20-29세는 56명(16%), 50대는 47명(13.5%), 60대는 22명(6.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이 176명(50.4%), 전문대 66명(18.9%), 고졸 62명(17.8%), 대학원 졸업 45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수입은 200-300만원대 118명(33.8%), 100-200만원대 89명(25.5%), 300-400만원대 65명(18.6%), 400-500만원대 25명(7.2%), 500만원 이상 52명(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창업의 주요동기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함이 150명(43.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응답이 118명(33.8%), 개인의 능력 활용을 위해라고 응답한 47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169	48.4
	여자	180	51.6
연령	20대	56	16.0
	30대	102	29.2
	40대	122	35.0
	50대	47	13.5
	60대이상	22	6.3
학력	고졸	62	17.8
	전문대졸	66	18.9
	대졸(4년제)	176	50.4
소득	대학원	45	12.9
	100-200만원 미만	89	25.5
	200-300만원 미만	118	33.8
	300-400만원 미만	65	18.6
	400-500만원 미만	25	7.2
창업 동기	500만 원 이상	52	14.9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150	43.0
	사회적 지위를 위해	18	5.2
	개인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47	13.5
	좋아하는 일을하기 위해	118	33.8
	기타	16	4.6

4.2.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했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는 KMO 값이 0.5이상, 그리고 Bartlett 값이 0.000($p < 0.05$)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구성개념의 신뢰성은 크론바하의 알파계수 값으로 측정하는데,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 α)가 0.7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Hair et al., 2011). 각 구성개념의 신뢰성은 도덕적 책무 .853, 자기효능감 .832, 감성지능 .738, 사회적기업가정신 .806,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869로 나타났다.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시에 측정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사용된 모든 변수를 대상으로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의 요인이 5개가 도출되었으며,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32.5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의 분산이 20~40% 정도의 분산이거나 50%이상 넘지 않으면 동일방법편의에 따른 문제는 갖지 않는다(Podsakoff & Organ, 1986; Podsakoff et al., 1986; 박원우 외, 2007). 따라서,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분석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방법론이 적용되며 구조모형은 다중회귀분석 또는 경로분석 방법론이 반영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정은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기초부합치(GFI: Good of Fit Index), 원소 간 평균 차이(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으로 확인하였다. 적합도 판정 결과, 카이제곱(χ^2)=438.111, 자유도(df)=142, p=.000, CFI=.91, NFI=.90, GFI=.90, RMSEA=.007로 나타났다. GFI, NFI, CFI는 0.8 이상, RMSEA는 0.08 이하의 기준을 바탕으로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Bagozzi & Yi, 1988; Hair et al., 1995). 또한,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모두 0.7이상, 평균 분산 추출 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을 확보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2010).

상관분석을 통해서 변수들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특정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 변수들 간의 공유 분산이 다른 잠재변수와의 공유분산과 비교한 개념인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이 상관계수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은 만족하고 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3> 변수의 구성 및 측정 항목

요인	측정 문항	요인 적재량	alpha
도덕적 책무	1)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 책무다.	.828	.853
	2) 우리는 사회소외계층을 도움 도덕적 책무가 있다.	.812	
	3)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것이 사회적 정의다.	.797	
	4)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 중 하나이다.	.783	
자기효능감	1) 나는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794	.832
	2) 나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748	
	3) 나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730	
	4) 나는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06	
감성지능	1)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잘 헤아리는 편이다.	.797	.738
	2) 나는 타인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795	
	3) 나는 내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생각해 볼 때 스스로가 관참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747	
사회적기업가 정신	1) 사회적기업가로서 해야 할 역할이 내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795	.806
	2) 내가 꿈꾸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건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737	
	3) 나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627	
	4)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일단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03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1) 나는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고 싶다.	.796	.869
	2) 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대략 수립되어 있다.	.795	
	3) 나는 언젠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793	
	4) 나는 언젠가는 사회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고 싶다.	.760	
KMO and Bartlett's Test		.87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3354.417
		df(p)	171(.000)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비표준화 계수	Standard Estimate	t-value	AVE	Composite Reliability	
도덕적 책무	MO1	0.995	0.071	13.974***	0.953	0.832
	MO2	0.956	0.066	14.397***		
	MO3	0.952	0.070	13.597***		
	MO4	1	-	-		
자기 효능감	SELF1	0.947	0.069	13.631***	0.972	0.835

	SELF2	1.204	0.073	16.442***		
	SELF3	0.738	0.068	10.872***		
	SELF4	1	-	-		
감성지능	EI1	0.867	0.090	9.605***	0.901	0.834
	EI2	1.035	0.106	9.806***		
	EI3	1	-	-		
사회적기업가정신	SE1	0.789	0.789	10.352***	0.967	0.801
	SE2	0.887	0.887	11.325***		
	SE3	1.102	0.081	13.525***		
	SE4	1	-	-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SI1	1.011	0.060	17.946***	0.966	0.830
	SI2	0.972	0.066	14.818***		
	SI3	0.949	0.060	15.685***		
	SI4	1	-	-		

주) $\chi^2=438.111$, 자유도(df)=142, p=.000, CFI=.91, NFI=.90, GFI=.90, RMSEA=.007

<표 5>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도덕적 책무	3.80	0.70	(0.975)				
(2) 자기효능감	3.50	0.82	0.338**	(0.986)			
(3) 감성지능	3.66	0.67	0.178*	0.469**	(0.951)		
(4) 사회적기업가정신	3.36	0.76	0.387**	0.731**	0.545**	(0.984)	
(5)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3.35	0.86	0.451**	0.613**	0.342**	0.710**	(0.983)

주) 대각선 소괄호 행렬은 AVE의 제곱근을 의미함 (* p<.05, ** p<.01, *** p<.001)

4.2.3.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364.989$, df=140, RMSEA=0.068(<0.08), GFI=0.907(>0.90), NFI=0.90(>0.90), CFI=0.93(>0.90) 등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경우 어느 하나의 특정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적합도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 적합도는 표본 수나 변수의 수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모든 적합도 평가 결과는 권장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Marsh & Hocevar, 1983; Hair et al., 2010).

<표 6> 가설검증결과

경로	전체		남성		여성	
	Standard Estimate	t-value	Standard Estimate	t-value	Standard Estimate	t-value
H1: 도덕적 책무 → 사회적기업가정신	0.259	4.353***	.072	.467	.071	4.560***
H2: 자기효능감 → 사회적기업가정신	0.652	9.090***	.094	5.104***	.076	6.805***
H3: 감성지능 → 사회적기업가정신	0.273	3.521***	.107	2.764**	.080	2.614**
H4: 사회적기업가정신 →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0.793	13.050***	.137	7.038***	.108	8.346***
남성과 여성 간의 조절 경로의 χ^2 차이						
H5: 도덕적 책무 → 사회적기업가정신	$\Delta\chi^2=8.370$, df=1, p=.004					
H6: 자기효능감 → 사회적기업가정신	$\Delta\chi^2=.313$, df=1, p=.576					
H7: 감성지능 → 사회적기업가정신	$\Delta\chi^2=.341$, df=1, p=.559					

주1) $\chi^2/df=2.61$, GFI=.907, AGFI=.874, CFI=.93, NFI=.90, RMR=.047, RMSEA=.068

주2) * p<.05, ** p<.01, *** p<.001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가설검증은 모형 내 요인들 간의 경로계수의 값과 부호,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

가능하다. 전체 모형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경로계수는 0.259 ($p < 0.001$, $t = 4.353$)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도덕적 책무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경로계수는 0.652 ($p < 0.001$, $t = 9.090$)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가 채택되었다. 셋째,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경로계수는 0.273 ($p < 0.001$, $t = 3.521$)으로 유의 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이 채택되었다. 넷째,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의 경로계수는 0.793 ($p < 0.001$, $t = 13.050$)으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가 채택되었다.

성별 차이에 따른 조절효과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간의 조절경로의 x^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녀차이에 따른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를 자유모델로 정하고, 두 구성개념 간의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의 x^2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델 간 차이($\Delta x^2 = 8.370$, $df = 1$, $p = .004$)가 확인되어,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관계에서 남녀차이에 따른 조절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두 집단의 경로계수 값을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간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도덕적 책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 ($\beta = .072$, $t = 4.67$)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도덕적 책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 ($\beta = .071$, $t = 4.560$)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과의 관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간 조절경로의 x^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녀차이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를 자유모델로 정하고, 두 구성개념 간의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의 x^2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델 간 차이($\Delta x^2 = .313$, $df = 1$, $p = .576$)가 확인되어,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6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경로에서 남녀차이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7

을 검증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간 조절경로의 x^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녀차이에 따른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를 자유모델로 정하고, 두 구성개념 간의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의 x^2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델 간 차이($\Delta x^2 = .341$, $df = 1$, $p = .559$)가 확인되어,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7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경로에서 남녀차이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이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Preacher & Hayes(2008)가 제안한 부스트랩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변수는 완전매개를 의미한다(Hoyle & Smith, 1994). 검증결과,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기업가정신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한 결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도덕적 책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의 유의확률이 모두 .004 ($p < .01$)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도덕적책무는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의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매개효과 검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H8	도덕적 책무	사회적기업가정신	.171**	.000	.171**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000	.092**	.092**
H9	자기 효능감	사회적기업가정신	.487**	.000	.487**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000	.264**	.264**
H10	감성 지능	사회적기업가정신	.250**	.000	.250**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000	.135**	.135**

주)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특성 요인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창업자의 성별 차이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자의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려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 있어 성별 차이의 조절적 역할이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적 책무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정의실현, 공동체 유대감, 소외계층 지원과 같은 사회적 배려 의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 및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으로써 경제활동의 사회적 역할이 남성과 동등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창업할 수 있도록 혁신 창출, 기회 포착, 리스크 관리와 같은 핵심 활동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회적기업 교육과정은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무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타인에 대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공감적 관심의 수준 정도가 개인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녀 차이로 인한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령, 호텔 판촉원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성 판촉직원의 감성지능이 여성 판촉직원의 감성지능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가 있다(이은수, 2015).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기업가정신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창업자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더욱 높이는데 있어서 매개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이 충만한 창업자라도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살펴본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기존의 조직 차원에서 연구된 사회적기업 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벗어나 개인 차원으로 살펴보고 내적 특성을 대표하는 주요 선행 요인인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을 도출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 확장 및 접근방식을 제공하였다. 둘째, 사회적 가치실현의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자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가 교육과정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에서 주로 진행된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자료수집 및 분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분야에 있어서 개인의 특징 및 성별의 효과를 규명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이

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기능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접근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결정하는 개인의 직접적 요인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남녀의 차이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적기업의 창업에 대한 양적 증대를 목표로 추구했던 것을 확장하여 질적 향상을 목표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과목을 개인의 사회적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사회적 혁신, 감성 리더십, 창업 등을 활용한 경험 중심의 실무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적 자질과 같은 심리적인 속성, 태도, 의도와 같은 내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창업을 앞둔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1:1 창업 컨설팅 교육 및 지원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창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의 목표설정 및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창업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을 서울 및 경기권 지역의 사회적기업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또는 서울 및 경기도 내에서 이수 중인 예비 창업자로 한정된 표본의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자료 수집을 통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지역별 그룹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거나, 사회적기업가 교육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의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함께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해 실증분석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요인을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으로 살펴보았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중 개인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기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자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기업 근무 경험에 대한 유무, 창업 경험 등과 같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도 고려한 사회적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가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을 수행한 사회적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의 사회적기업의 창업으로 이어지는 종단연구로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해본다.

REFERENCE

- 강민정·김혜규·강예원(2015).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 역량 연구, *경영교육연구*, 30(1), 217-243.
- 강재학·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 493-507.
- 고용노동부(2018a).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Retrieved (2018.12.10) from http://www.moel.go.kr/news/enevs/report/enevsView.do?news_seq=8956.
- 고용노동부(2018b).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Retrieved (2019.01.30) from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1100258.
- 고용노동부(2019a).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발표*, Retrieved (2019.01.14) from http://www.moel.go.kr/news/enevs/report/enevsView.do?news_seq=9891.
- 고용노동부(2019b).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Retrieved (2019.09.23.) from http://www.moel.go.kr/news/enevs/report/enevsView.do?sessionid=QUY8BACKgvtJcFxrCgJfC7e9KXDjouqY0AUaJWkQJpJnSpI7yKN242KgJIpDliQp.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10212.
- 고유상·장인성·문철우·신유형(2014). 프로세스 관점의 사회적기업가 정신, *전략경영연구*, 17(2), 155-184.
- 공혜원·추승엽(2020). 공감, 사회적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기업가 의도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33, 817-840.
- 곽선화(2013).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관한 양적 분석-2007~2010년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2(1), 289-309.
- 권기환·김진홍(2017). 선량한 마음은 사회적 기업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경영연구*, 76, 101-121.
- 권순봉·정재엽·최명길(2016).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창업의도 영향 요인 연구, *경영교육연구*, 31(5), 259-283.
- 김덕호·정문기(2017). 사회적기업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6(3), 131-165.
- 김성환·복경수·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5-26.
- 김영욱·이지만·정승화·최영근(2012). 사회적 기업의 파트너십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22(4), 65-92.
- 김종호(2008). *우리나라 기업가정신과 그 결정 요인*, 서울: 산업연구원
- 김형주·전인오(2017).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5), 55-66.
- 김희철(2017). 사회적기업의 성과 영향요인과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8(7), 342-349.
- 김창봉·백남욱(2019).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과 경험 특성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 연구: 사회적 가치 추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5), 43-59.
- 라준영(2010).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13(4), 129-161.
- 박성훈·김동준(2011). 사회적기업에서 조직시민행동과 그 선행요인에 대한 비전공유와 가치일치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18(3), 24-54.
- 박원우·김미숙·정상명·허규만(2007).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원인과 해결방안, *인사조직연구*, 15(1), 89-133.
- 박재춘(2019). 예비창업가의 학습된 무력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
- 서 회복탄력성과 기업가정신의 다중매개역할, *벤처창업연구*, 14(6), 77-90.
- 박재환·김우중(2015). CEO의 경력지향성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중소기업연구*, 37(2), 69-86.
- 방하남·이기우·엄형식(2010). *사회적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귀희(2011).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 학회회보*, 15(2), 199-227.
- 양준환·침희(2015). 한·중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19(4), 25-53.
- 양현선·한태영(2018). 사회적 기업의 조직몰입에 대한 심리적 주인 의식의 영향과 사회적기업정신 및 조직지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1(1), 81-102.
- 위주환·김재호(2014).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창업가정신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9(3), 58-79.
- 이상직·박재춘(2015). 예비 청년창업자의 개인 창의성, 감성지능,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관계, *한국부패학회보*, 20, 1-22.
- 이수인·문재승·문계원(2016). 사회적 기업가정신, 직업정체성, 사회적 기업의 성과간 관련성 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19(3), 55-85.
- 이승희·이종승·정구상(2013).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과 성과에 있어 컨설턴트 전문역량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4), 197-207.
- 이연호·박영화·장우진(2011). 지역별 사회적 기업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개발연구*, 11(1), 1-35.
- 이용탁(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8(3), 129-150.
- 이은수(2015). 호텔 인턴직원의 감성지능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7(1), 161-182.
- 이정원·김영진(2017). 국내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논리와 운영 모델 탐색, *한국창업학회지*, 12(5), 279-301.
- 이진민·이상식(2017).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지*, 22(2), 123-142.
- 임진혁·이상희(2017). 변혁적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정성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대한경영학회 학술 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15-233.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장성희(2012). 창업가의 특성, 환경적 특성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영연구*, 27, 223-245.
- 장성희(2014).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4(6), 355-366.
- 장영란·홍성화·차진화(2012). 사회적 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0(2), 175-207.
- 장유진·이병희(2019). 직장인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7), 497-511.
- 전은영·변병설(2017).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2), 69-96.
- 정대용·김민석(2010).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가치추구와 경제적 가

- 치추구가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3(5), 2299-2321.
- 정선희·조상미(2018). 하이브리드 요인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1(3), 125-162.
- 정은정·조경희(2015). 감성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0(1), 81-103.
- 조규호(2013).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8(4), 57-83.
- 조희진·장용석(2016).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한국정책학회보*, 25(4), 329-358.
- 주상호·이광순(2016).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사례분석 연구, *인문사회* 21, 7(4), 167-186.
- 최윤미·류정현·이상훈·박한림·오현석(2015).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와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HRD 연구(구 인력개발연구)*, 17(1), 189-221.
- 최종열·정해주(2008). 경영학 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213-230.
- 추승엽·공혜원(2019). 성별 및 출신이 기업가정신이 미치는 영향: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함의, *벤처창업연구*, 14(5), 93-10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7).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 Ashoka.(2012). What is a social entrepreneur? http://www.ashoka.org/social_entrepreneur.
- Austin, J., Stevenson, H., & Wei-Skillern, J.(2006).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1), 1-22.
- Bae, K. H.(2011). A Study on the Concept of Social Entrepreneurship: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5(2), 199-227.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ndura, A.(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5(1), 307-337.
- Bang, H. N., Uh, K. G., & Um, H. S.(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Third year): Social Enterprise: A Model of Continuous Employment and Developm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Korea.
- Bird, B.(199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42-453.
- Birnbaum, D. W., Nosanchuk, T. A., & Croll, W. L.(1980). Children's stereotypes about sex differences in emotionality. *Sex Roles*, 6, 435-443.
- Bornstein, D.(2007). *How to change the world: Social entrepreneurs and the power of new ideas*. Oxford University Press.
- Chang, Y. J., & Lee, B. H.(2019). The Impact of Worker's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497-511.
- Chang, Y. R., Hong, J. H., & Cha, J. H.(2012).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Finance*, 30(2), 175-207.
- Cho, H. J., & Jang Y. S.(2016).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5(4), 329-358.
- Cho, K. H.(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Korea Enterperneuship Society*, 8(4), 57-83.
- Choi, J. Y., & Jeong, H. J.(2008). A Study On Effect Of Management Education To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5(3), 213-230.
- Choi, Y. M., Ryu, J. H., Lee, S. H., Park, H. R., & Oh, H. S.(2015). Components and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Entrepreneurship,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7(1), 189-221.
- Choo, S. Y., & Kong, H. W.(2019). The Effects of Gender and Childbirth on Entrepreneurship: Implications for the Activation of Female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93-104.
- Chung, D. Y., & Kim, M. S.(2010). The Effects of Pursuit of the Organizational Members Social & Economical Values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3(5), 2299-2321.
- Chung, S. H., & Cho, S. M.(2018). The effect of hybrid factor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erprise Studies*, 11(3), 125-162.
- Dacin, M. T., Dacin, P. A., & Tracey, P.(2011). Social entrepreneurship: A critique and future directions. *Organization Science*, 22(5), 1203-1213.
- De Vita, L., Mari, M., & Poggesi, S.(2014). Women entrepreneurs in 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s from the literature.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2(3), 451-460.
- Dees, J. G.(1998). The Mean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http://www.redalmarza.cl/ing/pdf/TheMeaningofsocialEntrepreneurship.pdf>
- Defourmy, J., Kuan, Y. Y., & Kim, S. Y.(2011). Emerging models of social enterprise in Eastern Asia: A cross-country analysis. *Social Enterprise Journal*, 7(10), 86-111.
- Donh, C. H.(1994). *Observations on Entrepreneurship in Agriculture*, In Arthur Cole (Ed.) Change and the Entrepreneur, Harvard University Press, 22-24.
- Ernst, K. K.(2011). *Heart over mind-an empirical analysis of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mation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Doctoral, Schumpete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University of Wuppertal-Bergische Universität

- Wuppertal.
- Fayolle, A., & Degeorge, J. M.(2006).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ur: New approaches to evalua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sues and Newness*, 74-89.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ranovetter, M.(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Forster, F., & Grichnik, D.(2013).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mation of corporate volunteers.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4(2), 153-181.
- Haines, R., Street, M. D., & Haines, D.(2008). The influence of perceived importance of an ethical issue on moral judgment, moral obligation, and moral int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81(2), 387-399.
- Hair, J. F., Rolph. E. A., Ronald. L. T., & William. C. B.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Seventh Editi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Hair, J. F., Wolfinbarger Celsi, M., Money, A., Samouel, P., & Page, M. J. (2011). *Essentials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Armonk, NY: Sharpe.
- Hockerts, K.(2015). The social entrepreneurial antecedents scale (SEAS): A validation study. *Social Enterprise Journal*, 11(3), 260-280.
- Hockerts, K.(2017). Determinants of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105-130.
- Hong, E. P., & Kim, J. H.(201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romo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Start-up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31(1), 23-42.
- Hoyle, R. H., & Smith, G. T.(1994). Formulating clinical research hypotheses as structural equation models: a conceptual overview entrepreneu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3), 429-440.
- Im, J. H., & Lee, J. H.(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Announcement of the Academic Presentation Conference of the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15-233.
- İrengün, O., & Arikboğa, Ş.(2015).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on social entrepreneurship intentions: A field research.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95, 1186-1195.
- Ip, C. Y., Wu, S. C., Liu, H. C., & Liang, C.(2017). Revisiting the antecedents of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3), 301-323.
- Jeon, E. Y., & Byun, B. S.(2017). The Impact of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 on its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9(2), 69-96.
- Jang, S. H.(2012).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ocial Entrepreneurship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7(3), 223-245.
- Jang, S. H.(2014).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Market Orientation,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 *Review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355-366.
- Ju, S. H., & Lee, K. S.(2016). A Study on Case Analysis through Business Models of Social Enterpris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4), 167-186.
- Jung, E. J., & Cho, K. H.(2015). The Effects of Emotional leadership upon Self-efficacy-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 *Tourism Research*, 40(1), 81-103.
- Kang, M. J., Kim, H. K., & Kang, Y. W.(2015). A Study on Social Venture Start-up Competencies of Social Entrepreneurs-The Case of KAIST Social Entrepreneurship MBA,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0(1), 217-243.
- Kang, J. H, & Yang, D. W.(2016).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493-507.
- Kibler, E., & Kautonen, T.(2016). The moral legitimacy of entrepreneurs: An analysis of early-stage entrepreneurship across 26 countrie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4(1), 34-50.
- Kim, C. B., & Baek, N. Y.(2019).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Entrepreneur's Strategic Competency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Experiences on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value Seek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43-59.
- Kim, D. H., & Jeong, M. G.(2017). The Study on Factors to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to Establish Social Enterpris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3), 131-165.
- Kim, H. C.(2017). A Study on the Factors Effecting Performance and Correlation in Social Enterprise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7), 342-349.
- Kim, H. J., & Jeon, I. O.(2017). The Influence of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Social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55-66.
- Kim, J. H(2008). *Korean entrepreneurship and its determining factors*, Seoul;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 Kim, S. H., Bok, K. S., & Park. J. C.(2015).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 Entrepreneurship*, 10(5), 15-26.
- Kim, Y. W., Lee, J. M., Chung, S. W., & Choi, Y. K.(2012). A Study of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s' Partnerships on their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2(4), 65-92.
- Koh, Y. S., Jang, I. S., Moon, C. W., & Shin, Y. H.(2014). A Review of Social Entrepreneurship: Towards a Theory of Process Perspectives,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17(2), 155-184.
- Kong, H. W., & Choo, S. Y.(2020). Empathy, Social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3, 817-840.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2017). *A GUIDE TO SOCIAL ENTERPEISE*, Seoul;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Krueger, N.(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Krueger J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Kwag, S. H.(2013). A Quantitative Study on Growth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Focused on Financial Performance during 2007 ~ 2010,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32(1), 289-309.
- Kwon, K. H., & Kim, J. H.(2017). Can Virtuous Mind Affect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76, 101-121.
- Kwon, K. H., & Kim, Y. K.(2020). The Effect of the Golf Coach'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onsumer Citizenship Behavior: Moderating Effect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5), 653-664.
- Kwon, S. B., Jeong, J. Y., & Choi, M. G.(2016). An Empirical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ulture Social Enterprise,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5), 259-283.
- LaFrance, M., & Banaji, M.(1992). Toward a reconsideration of the gender-emotion relationship. *Emotion and social behavior*, 14, 178-201.
- Leadbeater, C.(1997). *The rise of the social entrepreneur* (No. 25). Demos. London, England.
- Lee, E. S.(2015). The Effect of Hotel Internship Train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17(1), 161-182.
- Lee, J. M., & Lee, S. S.(2017). A Study on the Antecedent Factors of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2), 123-142.
- Lee, J. W., & Kim, Y. J.(2017). Exploring the Operating Logics and Model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Content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5), 279-301.
- Lee, S. H., Lee, J. S., & Jeong, G. S.(2013).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fessional Ability of Consultants between Success Factors of Social Enterprises and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4), 197-207.
- Lee, S. I., Moon, J. S., & Moon, G. W.(2016). An Empirical Study on the Social Entrepreneurship: Occupational Identity and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9(3), 55-85.
- Lee, S. J., & Park, J. C.(2015).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emotional intelligenc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20(4), 1-22.
- Lee, Y. H., Park, Y. H., Jang, W. J.(2011). Determinants of Regional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11(1), 1-35.
- Lee, Y. T.(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Social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8(3), 129-150.
- Locke, E. A., & Latham, G. P.(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aes, J., Leroy, H., & Sels, L.(2014). Gender differences i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TPB multi-group analysis at factor and indicator level,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2(5), 784-794.
- Mair, J., & Noboa, E.(2003). *Social entrepreneurship: How intentions to create a social enterprise get formed*. IESE Working Paper No. D/521.
- Mair, J., & Noboa, E.(2006). *Social entrepreneurship: How intentions to create a social venture are formed*. In *Social entrepreneurship*(pp. 121-135). Palgrave Macmillan, London.
- Marsh, H. W., & Hocevar, D.(198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multitrait-multimethod matrice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231-248.
- Markman, G. D., Balkin, D. B., & Baron, R. A.(2002). Inventors and new venture formation: The effects of general self-efficacy and regretful think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149-165.
-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R.(2002).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MSCEIT) Item Booklet*. UNH Personality Lab. 26. https://scholars.unh.edu/personality_lab/26.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8a). *Comprehensive Plan for Fostering Human Resources in Social Economy*, Retrieved(2018.12.10) from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56.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8b). *The 3rd Basic Plan for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Retrieved(2019.01.30.) from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1100258.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9a). *The second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results*, Retrieved(2019.01.14) from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1.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9b). *Revised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Retrieved(2019.09.23) from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sessionid=QUY8BACKgvtJcFxrCgJfC7e9KXDjouqY0AUaJWkQJpjNSpI7yKN242KgJIpDliQp.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10212.
- Nga, J. K. H., & Shamuganathan, G.(2010).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demographic factors on social entrepreneurship start up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5(2), 259-282.
- Park, J. C.(2019). The Multi-path Mediated Effect of Resilience and Entrepreneu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6), 77-90.
- Park, J. W., & Kim, W. J.(2015). The Effects of CEO's Career Orientation on the Firm Performance: Mediation Effect of Entrepreneurship,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7(2), 69-86.
- Park, S. H., & Kim, D. J.(2011). The Moderating Effects Of Vision Sharing And Value Fit On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Its Antecedences In Social Enterpris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8(3), 24-54.
- Park, W. W., Kim, M. S., Jeong, S. M., & Huh, K. M.(2007). Causes and Remedies of Common Method Bias, *Korea Journal of Management*, 15(1), 89-133.
- Peredo, A. M., & McLean, M.(2006). Social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56-65.
- Petrides, K. V., & Furnham, A.(2001).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metric investigation with reference to established trait taxonomi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6), 425-448.
- Plaskoff, J.(2012). Building the heart and the mind: An interview with leading social entrepreneur Sarah Harris.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1(3), 432-441.
- Podsakoff, P. M., & Organ, D. W.(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4), 531-544.
- Preacher, K. J., & Hayes, A. F.(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ha, J. Y.(2010). Business Models for Social Enterprise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3(4), 129-161.
- Roberts, D., & Woods, C.(2005). Changing the world on a shoestring: The concept of social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Auckland Business Review*, 7(1), 45-51.
- Sequeira, J., Mueller, S. L., & McGee, J. E.(2007). The influence of social ties and self-efficacy in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motivating na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2(03), 275-293.
- Shapi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haw, E., & Carter, S.(2007). Socia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4(3), 418-434.
- Shirokova, G., Osiyevskyy, O., & Bogatyreva, K.(2016). Exploring the intention-behavior link in student entrepreneurship: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4(4), 386-399.
- Souitaris, V., Zerbinati, S., & Al-Laham, A.(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4), 566-591.
- Sutha, A. I., & Sankar, P.(2016).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social entrepreneur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Chennai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Studies*, 1, 93-106.
- Tan, H., Liu, C., Huang, Y., & Geubelle, P. H.(2005). The cohesive law for the particle/matrix interfaces in high explosives. *Journal of the Mechanics and Physics of Solids*, 53(8), 1892-1917.
- Tangney, J. P.(1999). *The self-conscious emotion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541-568). John Wiley & Sons Ltd.
- Tiwari, P., Bhat, A. K., & Tikoria, J.(2017).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7(1), 9.
- Walter, S. G., & Dohse, D.(2012). Why mode and regional context matter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4(9-10), 807-835.
- Wee, J. H., & Kim, J. H.(2014). The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social enterpris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9(3), 58-79.
- Wong, C. S., & Law, K. S.(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 Yang, J. H., & Zhan, X.(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Mediating of Self-efficac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9(4), 25-53.
- Yang, H. S., & Han, T. Y.(2019). The Social Enterpri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Effect of Psychological Ownership and the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1(1), 81-102.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25(2), 1537-1557.

- Zahra, S. A., & Wright, M.(2011). Entrepreneurship's next act.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5(4), 67-83.
- Zampetakis, L. A., Kafetsios, K., Bouranta, N., Dewett, T., & Moustakis, V. S.(2009).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5(6), 595-618.
- Zhou, J., & George, J. M.(2003). Awakening employee creativity: The role of leader emotional intelligence. *The Leadership Quarterly*, 14(4-5), 545-568.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n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Hyejung Jo*
Mi Ri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n social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fluen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social entrepreneurship were identified with moral obligation,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lso, prior studies o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nterprise entrepreneurship intention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ind that moral obligation,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ll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entrepreneurship. Second, social entrepreneu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enterprise entrepreneurship intentions. Third,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men and wom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value of the path coefficient repres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obligation and social entrepreneurship. However,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by gender.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for people who want to start a social enterprise in the future to verify their characteristics and use them as a way to improve their social entrepreneurship.

KeyWords: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Moral Obligation,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 First Author, Senior Researcher, Dongseo Engineering Corporation, archwood@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Instruct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gang University, mirikim@sogang.ac.kr